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사상에 대한 연구 ;
정치학 제 8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Focused on Chapter 8th in the Politics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stylized 'J' shape. The left side of the 'J' is composed of three curved, overlapping bands in blue, green, and grey. The right side is a solid purple vertical bar. In the center of the 'J', there is a smaller logo featuring an open book and the text 'JEJU 1952'. The entire logo is surrounded by a circular watermark containing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고진영

2009년 8월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사상에 대한 연구 ;
정치학 제 8편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Focused on Chapter 8th in the Politics

지도교수 조 영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고 진 영

2009년 5월

고진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 치 스 

심사위원 조 영 배 

심사위원 홍 주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6월

국 문 초 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사상에 대한 연구 ; 정치학 제 8편을 중심으로

고 진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영 배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인간성의 회복, 그리고 창의성 등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발달로 인해 이기주의의 팽배와 물질만능주의는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역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식중심의 교육현실로 인해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의 음악교육이다. 특히 음악을 통해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여겨 음악교육을 중시했던 사상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및 저작, 목적론적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이상과 교육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 제8편에 나타난 그의 음악교육사상을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의 지식중심의 교육풍토를 바로잡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을 키워냄으로써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리스토텔레스, 음악교육사상, 정치학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및 저작	3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3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3
III.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사상	5
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5
2. 목적론적 윤리사상	7
3. 범주론	9
4.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원리	10
5. 카타르시스론	12
IV. 『정치학』 제8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 철학	14
V. 결론	31
참고 문헌	33
ABSTRACT	3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는 세계화의 물결이 확산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획득의 격차가 심해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창의성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공익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홍효숙, 2006. p. 1).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공익적 측면보다는 경제성, 즉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데 비해, 그러한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물질적 욕구의 추구는 결국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괴리에서 오는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가치 전도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학생들 개개인의 건전한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인간으로서의 조화적 발달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측면만의 강조로 인해 야기되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미정립, 그리고 지식중심의 교육현실로 인해 많은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홍효숙, 2006. p. 1).

그런데 서양 음악교육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시대의 음악교육을 살펴보면, 음악은 전인적인 인간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과로 여겨졌으며, 강인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조화라는 목적 아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인교육의 일환으로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의 음악교육은 오늘날의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는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에서 이루어 지므로, 음악교육의 방법론적인 접근보다 철학적 접근을 통해 음악교육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 소질을 구현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고,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음악교육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을 고찰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전인 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 주제의 해결을 위해서 문헌 연구를 택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정치학(Politics)』, 그 중에서도 제8편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사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및 저작을 살펴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이상과 교육의 관계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cs)』 제8편에 나타난 그의 음악교육사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치학(Politics)』 제8편 이외의 다른 문헌에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은 다루지 않았으며, 플라톤의 교육사상 비교는 논외로 하였다는 점이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및 저작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아테네 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의사였으며 그의 어머니 파이스티스(Phaistis) 역시 의사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 방면에 흥미를 가졌고 이것이 그의 철학이 생물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원전 367년, 17세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유학을 떠나 아카데미에서 플라톤 밑에서 20년 동안 수학한다. 그러나 플라톤이 세상을 떠난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게 되고 약 30년 후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 학원을 만들고 ‘뤼케이온’이라고 이름 붙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는 Peripatikoi, 즉 페리파토스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들이 거닐며 철학적 대화를 나누던 ‘peripatos’(回廊)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 B. C. 323년 동방 원정에서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바빌로니아에서 병사한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아테네에서는 다시 반마케도니아 운동이 일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경죄로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어머니의 고향 에우보이아(Euboia) 섬의 칼키스(Chalkis)로 도피한다. “아테네 사람들이 두 번씩 철학에 대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W. Durant, 1927, p. 90)이었다. 그 뒤 그는 6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남아있는 대부분은 “강의를 위한 노트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춘미, 1995, p. 14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김춘

미, 1995, pp. 143-146)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 첫 순서를 차지하는 것은 논리학적 저작들이다. 왜냐하면 “논리학은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연구하든지 간에 그 보다 앞서 누구나 탐구하여야 할 일반교양의 일부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윤명노, 한전옥, 안상진, 1977. p. 43) 여기에는 범주론(Categoriae), 명제론(De Interpretatione), 분석론 전편(Alytica priora), 분석론 후편(Alytica posteriora), 토피카(Topica), 궤변론(De Sophisticis elenchis) 등의 저술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형이상학적 저작들이다. 형이상학적 저작들에는 「자연학(Physica auscultatio)」8권과 「형이상학(Metaphysica)」14권이 속하는데 「형이상학(Metaphysica)」이란 제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저작들을 정리하면서 제목이 붙지 않은 저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저서가 자연학(Physica auscultatio)」을 뛰어넘는다(Meta)는 의미로 「Metaphysica」이라 붙여졌다. 그러한 제목을 붙인 이유는 「형이상학(Metaphysica)」이 모든 다른 학문들을 공부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공부해야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큰 부분은 자연과학적 저서들로 여기에는 「천체론(De Coelo)」, 「생성소멸론(De generatione et Corruptione)」, 그리고 「기상학(Meteorologica)」이 있다. 또한 동물학에 해당하는 「동물지(Historia animalium)」10권과 그 외에 동물학 및 생물학에 해당하는 저술들이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로 실천 철학 쪽에 속하는 윤리와 정치에 관한 저술들이다. 체계적인 윤리학으로서 10권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과 8권으로 된 「정치학(Politica)」은 이 부분의 대표적인 저작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관은 바로 그의 「정치학」 제8권에서 논해진다. 그 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으게 한 158개국의 국법에 관한 것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귀중한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에우데모스 윤리학(Ethica Eudemia)」과 「대윤리학(Magna Moralia)」도 실천 철학적 저술에 속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사학(Rhetorica)」과 「시학(Poetica)」도 실천적 철학의 일부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저작이라 하겠다.

Ⅲ.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지나친 이상주의 관념을 배격하고 존재의 기반을 사물의 세계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상대적으로 현실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본적인 사상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인간이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가. 형이상학적 제 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가자 실현해야 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목적이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의 실현이 곧 선이라고 보았다. 형이상학은 ‘인생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사고에 대하여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사상을 아우르고 있는 형이상학적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그 중 중요한 개념인 형상과 질료, 가능성과 현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질료와 형상

만약 어떤 것이 독립적 실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각기 다른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그것들을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하게 하고 수적으로도 구별하게 해주는, 그러한 개체로 만들어진 질료나 질료적 구성의 차이에 있을 것이다.”(정대련, 1984, p. 12) 즉 탁자 두 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서로 다른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개체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은 그 사물의 형태 혹은 기능을, 질료는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실체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대상이다. 구체적인 개별적인 대상이라 함은 질료와 형상의 복합체를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물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물이 개체적인 실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상과 질료는 영원히 공존하여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영혼과 육체에 적용해 보면, 형상에 해당하는 영혼이 질료에 해당하는 육체로 하여금 한 개체적 인간이 되게 하며 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바 목적의 통일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질료에 관해 그의 스승인 플라톤의 견해와 대립되는데, “플라톤에 있어 형상은 ‘초월적 형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내재적 형상’이다.”(김성수, 1994, p. 44)

이러한 형상과 질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그의 정치학에 연결되면서 절대적인 이상 국가를 추구한 플라톤과는 달리 현실적인 국가 가운데서 이상을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질료와 형상에 대한 그의 견해는 가능태와 현실태로 연관이 되는데, “특히 이러한 모든 변화는 발전의 개념과 깊이 연관되면서 교육적 실체와도 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효숙, 2006, p. 14)

2) 가능태와 현실태

한 소년이 있다. 소년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교사, 성직자, 혹은 음악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지니고 있는 가능태는 가능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일정하다. 이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능태란 그 개체가 장차 될 수 있는 상태-교사, 성직자, 음악가-를 말하며, 현실태란 어떤 순간에 어떤 개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실재를 완전태라고 불렀다. 특히 여러 가지 완전태 중에서 성인의 완전태는 행복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제 조건 가운데서 달성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행복은 쾌락이나 명예, 부보다도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이나 인간의 탁월한 능력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대련, 1984, p. 16)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 그러므로 형상과 질료는 가능성과 잠재태에서 현실화

또는 현실태로 향해 발전하는 운동임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모든 사물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태가 아닌 가능태로, 그러한 인간의 가능태를 현실태로 변화시키는 일이 교육의 본질임을 시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목적론적 윤리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저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보인다. 이 책의 첫 구절은 “모든 기술과 탐구 또 모든 행동과 추구는 어떤 선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선이란 모든 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한 주장은 옳은 것이라 하겠다.”로 시작된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모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한 가지는 도구적 목적이다.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목적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자체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본래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본래적인 목적,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해위의 목적이 되는 선도 이러한 두 가지의 종류의 목적과 관련지을 수 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라는 단어를 사물의 특수한 기능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즉, 교사의 경우 교사로서의 자신의 기능, 즉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교사는 선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직업을 지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도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기능을 언급한다. 즉, 인간이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기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본성상의 기능이 추구하는 선이 최고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선한 인간이란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최고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최고선

선이란 그 자체로 올바른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최고선이란 단지 쾌락이라는 개념과는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은 수단적 선이 아닌, 본래적 선으로,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고선이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 최고선의 또 다른 이름이 행복이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실제로 그러한 선의 정점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최고선의 경지임이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행복, 즉 최고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다.

나. 최고선과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란 사고하고, 들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인간 고유의 활동을 의미한다. 고차원적인 활동, 예를 들면 농작물 재배방법을 습득한다던가, 수학 문제를 계산한다던가 하는 일들은 인간의 본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만이 달성할 수 있는 종류의 행복이 에우다이모니아¹⁾인 것이다.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사람의 기능들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상태로 인간의 이성²⁾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 행복한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생활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1)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행복이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란 희랍어의 번역이다. 그러나 이 에우다이모니아에 상응하는 역어가 없다는 점은 늘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굳이 단어를 번역한다면, well-being, 혹은 선한 정신 상태라 할 수 있다.

향락적인 것과 쾌락을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쾌락은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쾌락만을 좇는다면 인간의 생활은 비천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명예를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런 삶은 주로 정치가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피상적이라 주장한다. 그 이유는 명예란 인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관점은 관조의 생활을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진리의 통찰을 통해서 행복은 얻는다고 여기는 생활이다. 바로 이러한 삶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관조적 생활은 그 자신 외에는 다른 목적을 지니지 않으며, 자족성과 한가성에 싫증이 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조적 생활은 진리의 관조를 통해 얻어지는 삶으로, 그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관조적 삶은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오직 신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은 특정 직업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기 보다는 더욱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이성적 기능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인간만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범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A는 B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고의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제시하는 명제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어떤 정해진 질문들이 있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10종류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의 10가지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실체 : 그 주어는 무엇일까?
- ② 질 : 그것이 어떠한가?

- ③ 양 : 그것이 얼마나 있는가?
- ④ 관계 :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
- ⑤ 능동 : 그것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⑥ 수 동: 그것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 ⑦ 장소, 자리 :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 ⑧ 시간 : 그것이 언제있는가?
- ⑨ 상황 : 그것이 어떤 조건 속에 있는가?
- ⑩ 상태 : 그것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인간의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현상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범주란 말을 통해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는 말의 체계와 사물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제8편에서 논의되는 음악론은 바로 이러한 범주론적 방법으로 음악적 현상들을 분류할 뿐 아니라, 그의 질료형상설, 영혼론, 인식론을 바탕으로 상호 포함관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원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윤리학」,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정치학」 등의 저서에서 교육의 이상을 논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가 주장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 교육의 본질

위에서도 언급했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능태를 현실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교육이라 여기고 있다. 즉 가능태인 질료는 항상 그 안에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형상은 가능태의 구현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성장을 일련의 진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즉 성장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태,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안에서 형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교육이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그의 생각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즉, 국가는 하나의 틀로서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외부의 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탐구와 질문의 내적과정인 것이다. 그것은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나. 교육목적

교육은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익혀 몸에 익숙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 방법은 기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자신을 도우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그 목적, 즉 좋은 기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 정의는 교육문제를 실제적인 것으로 만든다. 첫째로 교육은 선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은 아무런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습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이다.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셋째로 교육의 문제는 윤리상의 문제이다. 즉, 인간 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교육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교육 전반의 목적과 일반적인 수단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므로 교육철학의 근본적 문제로 다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단계의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이며, 둘째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바로 행복에 도달하는 수단이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의 가장 특수한 목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지각하고 사고하는 습관과 고찰하여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목적은 올바른 지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다.”(성기산, 1983, p. 180) 좋은 습성들을 훈련하는 주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사상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의 자유교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시민에게 필요한 인격에 대해 논하면서, 시민을 위한 교육과 미래 생활을 위한 교육에 여가를 위한 교육도 포함시킨다. 그는 행복이 여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여가란 쾌락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닌, 지적인 활동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색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이 그 사회에 적용할 수 있으나, 혹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교육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을 내린다. 즉, 하나의 국가가 유지되려면 다음 세대들의 그 국가 체제에 대한 지지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도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이상 국가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 카타르시스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하나의 능력에 기초한 의식적인 창작활동’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예술품은 자연물과 구분된다. 자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예술작품은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론 활동·실천 활동·제작활동이다. 예술은 제작활동에 속하며 그 결과로 하나의 작품을 남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두 활동과 구분된다. 예술 활동은 독특한 능력을 기초로 어떤 법칙에 의하여 수행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단순히 본능이나 일반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창작은 예술이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다. 예술은 규칙, 수단의 의식적인 응용, 일정한 목적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기술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없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규칙에 의하여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이 기술과 근본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에 통용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예술은 객관적인 과정의 측면에서 파악할 때 모방이고 인간의 내면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즐거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이 현실을 모방한다는 생각은 그리스인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플라톤에 있어서는 현실 자체가 이데아의 모방이므로 불완전한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되어 더욱더 불완전해진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예술을 모멸하였다. 예술은 인간의 교육에 대한 효용성을 가질 뿐인데 그것도 많은 경우 오류를 야기하다. 예술은 인간을 오도하여 현실의 그릇된 상을 보여주며 인간을 타락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데아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예술이란 결국 옳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시인을 소피스트로 격하시킨다.

그러나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떠난 이데아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모방하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한다. 더욱이 그는 플라톤과 달리 모방을 복사로 보지 않는다.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있어야 할 이상을 표현하는 예술가의 모방은 결코 복사가 될 수 없다. 모든 예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①모방하는 수단 혹은 재료 ②모방하는 대상 ③모방하는 방식에 따라 예술을 구분한다. 예컨대 희극과 비극의 차이는 더 못한 사람을 모방하느냐 더 나은 사람을 모방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작가가 스스로 얘기하느냐 주인공으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느냐의 모방방식에 따라서 서사시와 희극의 구분이 나타난다.

모든 예술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즐거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감각적인 쾌락도 있고 긴장이 완화되는 즐거움도 있다. 또한 인식의 즐거움도 있다. 비극에서 느끼는 정화(政化, Katharsis)도 일종의 쾌감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목적이 연민과 공포를 통하여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비극은 보다 나은 사람, 즉 위대한 인물이 어떤 오류를 통하여 불행하게 되는 소개자 선택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불행은 관객들에게 동정과 공포를 일으키고 비극을 보고 난 관객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정화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백한 설명이 없으므로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감정의 정화로 파악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감정의 배설로 파악하려 한다.

『정치학』에서 언급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판단해볼 때 후자의 경우가 옳은 것 같다. 즉 공포와 동정으로 휩싸이고 억압을 느끼는 인간이 비극을 관람함으로써 ‘가벼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가공할만한 비참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관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관객 스스로가 거기 연관되지 않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무대 위에서는 현실이 아닌 가공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다른 이론들에서처럼 시대적인 한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플라톤과 달리 예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했고 또 예술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그의 공적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IV. 『정치학』 제8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총 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 가족론

제2편 : 이상 국가에 대한 견해

제3편 : 시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이론

제4편 : 실제적 헌정질서와 그 변형

제5편 : 혁명의 원인과 헌정질서의 변화

제6편 : 안정 기반을 위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건설방법

제7편 : 정치적 이상과 교육적 원리

제8편 : 청소년의 교육

『정치학』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플라톤 사후에 집필된 것으로 제2편, 제3편, 제7편, 제8편이 이에 속한다. 이 부분에는 플라톤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플라톤을 비판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반면 후기 저작인 제4편, 제5편, 제6편은 당시의 도시국가들의 정치구조를 비교하며, 정체론과 혁명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튀케이온 학교를 설립하고 난 후의 그

의 연구의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국가의 청사진은 시민이 아닌 다른 계급, 예를 들면 노예나 외국인, 여성들의 노동에 의해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시민은 학문과 예술을 평화로이 추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꾼 국가는 귀족정치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생각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중 제일 마지막 편인 제8편은 그가 꿈꾸던 국가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행해져야 할 교육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그 안에 음악교육이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학』 제8편의 내용을 차례로 짚어가며 그의 음악철학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학』 1장은 한 시민을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형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민이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형태에 익숙해져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 정치가 더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능과 기술, 덕을 익힘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것처럼 중요한 교육은 제각기 알아서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통제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국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공공적인 교육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제1장의 서두를 살펴보면 “교육을 … 오늘날의 그것처럼 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며…”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보아, 현 우리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역시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학』 제7편 후반부에서는 사실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전혀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교육의 장점을 각각의 학생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유연적인 방법이라고 시사한다.

그러나 제8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교육보다는 교육을 국가의 제도로서 통제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적이고 보편적인 공공교육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이상론을 주장한다. 어느 한 시민이 존재하더라도 그 개인은 자신의 것이 아닌, 국가에 속한 한 명의 ‘국민’일 따름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 헌법의 정신을 기르고, 본래의 정치 형태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법률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각자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공교육에서는 모든 가르침을 일단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적인 정신이 자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제8편의 2장이 교육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공공교육의 범주 안에서 다시 어떠한 이념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는 당대의 현상을 분석하며 그 종류를 나열하고 거기에서 각 이념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마무리를 짓는다.

위에서 언급했듯 제2장에서는 교육의 성격과 방법에 대하여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만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인간이 배워야 할 것, 즉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최선의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 그 자체가 지식과 더 관련이 깊은지, 덕과 더 관련이 깊은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배워야 할 내용 역시 결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교육내용을 정함에 있어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만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들은 유익한 것을 모두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바의 유익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직업은 신사에게 적당한 것과 편협한 것으로 분류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비천하게 함이 없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그와 같은 종류의 지식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나 학문이나 간에 자유인의 신체나 영혼이나 마음을 덕의 실천이나 또는 실행에 덜 적합하게 하는 것은 비속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신체를 보기 싫게 하기 쉬

운 기술은 탁속(卓俗)한 것이라고 하며 모든 임금 노동이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마음을 뺏고 품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인이 획득하기에 꼭 적합한 편협하지 않은 기술이 몇 가지 있으나 그것도 다만 어느 정도의 문제이고 만일 그와 같은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종사한다면, 그와 동일한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기 앞에 설정하는 목적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만일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또는 뛰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는 배운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 편협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반면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 똑같은 행동이 비천하고 노예적인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교육의 주제는 내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는 신사(紳士)됨에 적당한 성격의 것이며 일부는 편협한 성격의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결론은 유익한 것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필요한 바의 유익한 것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익한 것이란 실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 예를 들어 요리기술이나 돈을 버는 다양한 기술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익한 것 중에 참으로 필요한 바의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행하는 노동이 아닌, 자유인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교육의 대상으로 본 것은 자유 시민이었으며, 곧 농업 등 모든 임금노동을 하는 노예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물질적 공급을 위한 기술을 교육시키게 되는데, 이 영역은 교육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당시의 자유인은 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교육은 관조적 사고를 통해 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가의 필요성을 가지는 사람, 즉 정치적 활동을 하는 시민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은 바로 덕을 갖춘 행복한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인은 학문과 예술에 종사하며 그 중에서 국가의 통치자도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통해 국가와 자유인에 기여하는 노예들은 자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노예들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느라 여가를 활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자체에 만족하게 되며 임금을 위한 노동은 자유인의 품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인의 경우도 교육의 주제가 너무 편협한 것이거나 신사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곧 중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과 통한다.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즉 중용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이다. 따라서 결국 자유인의 교육은 중용, 즉 덕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다.

요약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국가에 필요한 자유로운 시민은 유익한 것들 중에 노예와는 구별이 되는 유익한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그것은 이는 제2장 전반부에서 제시한 교육의 세 가지 목적과 일치한다. 즉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하며 덕을 지향하고 그 속에 지식을 포함하는 자유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자유인에게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중에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이 역시 펼쳐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기간을 출생에서 7세, 7세부터 사춘기, 그리고 사춘기부터 21세까지의 3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출생에서 7세까지의 신체적인 배려를 강조하는데 유아는 모유를 통해 길러져야 하며 놀이를 통해 충분히 움직여서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이 자라는 환경은 자유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하며, 5세부터 2년간은 7세 이후에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7세 이후가 되면 사춘기를 기준으로 두 기간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7세가 되면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그 필요성이 3장의 서두에 논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능이나 기술의 훈련에 있어서 조기의 훈련과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어린이의 교육에 있어 읽기와 쓰기, 음악, 체육, 회화

의 네 과목을 필수교과로 중요시 여겼다.

읽기와 쓰기는 자유인에게도 사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기술로 보인다. 특히 정치가로서의 삶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의 사회상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한편 그리기 같은 것은 예술가의 일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체육은 육체의 건강과 힘,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춘미, 1995, p. 183).

그러나 예전부터 교육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교과목인 음악은 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음악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특히 더 중 특히 음악을 중요시하고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음악은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입각하기 않고 여가의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우선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사상을 떠올려 보면, 인간은 관조적 이성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았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을 하는 때가 아닌 한가로이 사유를 할 수 있는 여가시간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 여가의 활용으로서 고차원적인 사유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음악인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에만 관조적 이성이 활성화되므로 여가는 '모든 행동의 제일의 원리'라고 여긴다. 그것은 곧 인간의 삶의 목적이 관조적 사유를 누리는 것, 곧 여가를 누리는 것, 그것은 그가 중시 여겼던 행복으로 가는 길이자 서과 덕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는 일의 목적이지만, 우리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오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자는 그 직업에만 열중하므로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여가는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을 한 후 휴식을 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휴식을 위해 오락을 찾게 되는데, 바로 이 오락은 다른 때보다도 심각한 일, 즉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가운데 더욱 더 필요하다고 여겼다. 즉, 오락이 창조해내는 정서는 휴식이며 인간은 쾌락 가운데서 휴식을 얻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휴식이 여가로 이어지며 관조

적 이성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행복이란 쾌락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는 가장 고상한 원천에서 우러나온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다른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그야말로 지적인 활동으로 사용되는 여가를 목적으로 하여 국민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학문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교과목이 바로 음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과는 단순히 음악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기반으로 다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 음악을 그 자체의 필요성에 입각하지 않고 교육의 한 부분으로 넣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은 읽기와 쓰기처럼 정치적 생활에 유용한 것도 아니요, 체육처럼 심신의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술가의 일을 더욱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음악이라는 교과목에는 오로지 지적인 향락만을 위한 효용이 나게 되고, 이것이 음악을 교육에 도입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음악은 실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인의 여가를 차지하는 한 가지 방법이자 미적 감정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음악의 기능을 본능적인 욕구 충족 기능과 선한 성품을 촉진하여 인격을 개선하는 기능, 즉, 덕성 함양의 기능으로 나누어 교육과 유희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고상한 향락이라는 개념으로 음악 예술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기 때문이다.”(손효선, 2008, pp. 42-43)

제3장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으로 여긴 자유인의 모습은 기계적인 기술이 아닌 유용한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 읽기와 쓰기, 그리기, 음악과 체육을 통해 심신이 고루 발달하며 교양을 갖춘, 이성을 지닌 인간인 것이다.

제3장을 요약하자면 자유인이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장차 자유인이 될 아동을 위한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라면 자유인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과는 관조적 이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극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실체가 이론보다 앞서 사용되며, 따라서 정신교육보다는 체육을 통한 신체의 단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 단련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제4장에서 논하고 있다.

제4장

오늘날에 있어서 아동들에 대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같이 보이는 여러 국가 가운데서 어떤 국가는 아동들에게 체육적 습관을 창조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들은 아동들의 체격을 손상하고 그들의 발육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라케데모니아인들은 비록 이러한 과오에 빠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과도한 훈련을 가지고서 그들의 어린이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에 있어서는 교육은 유독 또는 대체적으로 이 목적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라케데모니아인들이 그들의 목적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우리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심인(野審人)이나 동물 가운데서도 용기라는 것이 최고의 잔인성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도 사자와 같은 기질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흑해 부근에 살고 있는 아케아인과 헤니오키인들과 같이 쉽사리 사람을 죽이고 먹는 인종이 많이 있으며 이와 같이 아하고 또는 이보다도 더욱 폭악하여 전부가 약탈로써 생활을 하면서도 용기는 없는 그 외의 대륙의 종족들도 있다. 리케데모니아인들은 유독 그들만이 그 힘든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나 체육상의 훈련에 있어서나 패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옛날의 우월성은 청소년들의 훈육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경쟁자들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을 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에 의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하며 진실로 고상한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이리도 아니요 다른 야수도 아니며 용감한 인간만이 그와 같은 위험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등한히 하는 반면 그 어린이들을 체육에 열중케 하는 부모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을 속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은 아이들을 단지 한 가지 성질에 있어서만 정치가로서 쓸모 있게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있어서까지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이 논의에서 논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 그들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라케데모니아인들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들의 교육과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으나, 과거에는 아무런 상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상의 훈련이 교육에 채택되어야 하고 아동들에게는 그 체육은 신체의 발육을 저해하지 않게 가혹한 식생활이나 고통스러운 작업을 회피함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종류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는 원칙인 것이다. 유년 시대에 과도하게 훈련함으로써 초래된 폐단은 올림픽의 승리자들의 예에서 현저하게 증명되었다. 즉 소년으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상을 획득한 자는 그 중에 2인 또는 3인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어릴 때의 훈련과 엄격한 체육상의 훈련이 그들의 체력을 탕진해 버린 까닭이다. 소년기가 지나면 3년간은 다른 공부를 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심한 훈련과 엄격한 식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노동은 상반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노동은 정신을 저해하고 정신적 노동은 육체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4장을 통해 체육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은 아동들의 신체적 손상과 발육을 저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훈련이 어린이들을 짐승처럼 함부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과도한 훈련을 통해 오히려 신체적 손상을 끼치며, 한 가지 능력만을 키워

다양한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써 리케테 모니아 인들의 교육과 올림픽 승리자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던 체육 교육은 우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으며 정신적인 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정치학』 제 8편, 1장부터 4장까지는 음악교과를 포함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음악교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제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걱정을 중지케하는 것으로서 오락이나 휴식을 위한 것, 둘째로 우리의 정신을 형성할 수 있고 우리들이 진정한 쾌락에 길들게 하는 것(덕에 이바지 하는 것), 여가의 향락과 정신의 배양에 이바지 하는 것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 답 중 세 번째는 지적향락의 다른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 지적향락의 단계를 휴식, 정신의 배양, 진정한 쾌락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질료 형성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을 오락으로 보는 관점을 가장 낮은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악론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음악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음악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교육이냐 오락이냐 혹은 지적향락이냐-하는 것 중에서 과연 음악은 어떤 것을 초래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음악은 이 세 가지 성질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청소년들의 교육은 오락을 위해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지적향락은 어린 소년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일 뿐 아직 불완전한 소년들은 그것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적 향락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음악교육은 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악은 휴식을 주는 순수한 쾌락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오락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아직 어린 학생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지적향락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불완전한

존재는 완전한 것, 혹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제7장에서 다시 다루는데, 그 답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다룰 때에는 윤리적 속성을 가진 선법과 리듬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 위에서 언급했던 휴식, 지적 향락, 덕을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모두의 성질을 갖는다고 대답한다. 오락이란 휴식을 위한 것이고 휴식이란 고통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적 향락이란 고상할 뿐 아니라 유쾌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시 여겼던 행복이란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을 위한 음악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순수한 쾌락과 저속한 쾌락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순수한 쾌락이란 완전한 생의 목적과 조화되는 것이며 동시에 휴식을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저속한 쾌락이란 선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된 노동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사람들이 고상한 쾌락과 저속한 쾌락을 혼동하여 저속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인간이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음악은 단지 저속한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휴양을 주는 것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통속적인 쾌락에서 나아가 성격과 영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음악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로서 올림푸스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 인간의 세계를 가장 잘 모방하는 장르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떠한 감각을 느끼고 그에 대해 느끼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 관조적 이성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음악은 관조적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음악의 속성을 가리켜 도덕적인 형상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인 형상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를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운율이나 곡조 그 자체를 떠나서도 음악적 모방을 들으면 동

감을 느끼게 되는데, 따라서 음악이 하나의 쾌락이 되며, 이 음악을 통해 정확한 판단력을 이룩하고 좋은 기질과 고상한 행동을 즐길 수 있는 힘보다도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도덕적 형상은 음악의 구성요소인 리듬과 멜로디의 성격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즉, 리듬과 멜로디는 분노와 온화, 용기와 절제 등 모든 기질의 모방을 표현하게 되고, 이는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바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와 동일한 곡조를 듣는다면, 영혼의 변화, 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서도 역시 도덕적 기질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형상이나 색채는 도덕적 모방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이며 육체가 주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점에 해당하는 예로 파우손과 포리그노투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시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그리노루스는 5세기 전반의 사람으로 주로 고귀한 인상을 주는 인물을 주는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따라서 그는 윤리적 화가로 알려져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그의 그림을 보는 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우손은 포그리노투스와 동일한 얼굴을 그려도 이상적인 형상이 나오지 않는, 인간의 신체를 추악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 도덕적 형상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음악은 아무리 단순한 멜로디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격의 묘사가 드러나고, 음악의 양식이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고, 듣는 사람들도 각자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음악이 도덕적 형상으로 나아가는 데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반리디아 식은 사람을 슬프고 엄숙하게 하지만, 완만한 곡조는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유약하게 하고, 또 도리아식은 온화하고 안정된 감정을, 푸리기아식은 열정을 촉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락뿐만 아니라 리듬 역시 가락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어떤 리듬은 휴식의 성질을, 또 다른 것은 동작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 중에서도 동작의 성질

을 띠는 리듬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고상한 동작의 성질을, 또 다른 어떤 것은 비속한 동작의 성질을 띤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정치학』 제8편의 5장 초반부에도 나와 있듯이, 음악은 그냥 듣는 대상으로만 삼아도 이와 같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직접 연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제6장에서 자세하게 펼쳐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 즉 스스로 노래하고 연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신체 발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지 음악, 나아가 덕을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연령마다 적당한 음악교육은 무엇이며, 적당하지 않은 음악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쉽게 대답할 수 있으며 음악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판단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 즉 음악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자유인’이 될 사람은 동시에 스스로 해 보지 않으면 음악을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릴 때 스스로 연주하는 법과 노래하는 방법을 익혀, 그것이 어느 정도 몸에 배게 되면 그 때부터는 실습이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음악이 비속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 사회에 어울리는 정치적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은 자유인은 어떤 멜로디와 리듬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락의 이중성에서 언급했듯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상한 쾌락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저속한 쾌락을 좇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발전을 저지하거나 육체를 퇴화케 하거나 혹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데 부적당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혹은 동물까지도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의

통속적인 멜로디나 리듬이 아닌, 고상한 멜로디와 리듬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음악 실습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악기에 대한 내용도 추론할 수 있다.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악기는 교육에 넣어서는 안 되며, 다만 음악도나 혹은 그 외의 교육을 받는 삶들을 현명하게 하는 악기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돈을 받고 음악을 하는 직업이 되면 그 정신은 자유인의 정신이 아닌, 노예의 정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테스트에서나 활용될 만한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악기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육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 명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악기의 예로 리디안하프, 헵타콘²⁾, 트라이앵글, 삼부카³⁾, 피리를 들고 있다.



[그림 5] 리이어(리라, lyre)



[그림 6] 기타라-그리스어로 kithara. 리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리라에서 더욱 진보한 것.

2) 헵타콘은 리이어(리라, lyre)의 한 종류로 줄이 많다.

3) 삼부카(Sambuka)-그리스어로는 Sabuyke, 고대 그리스의 악기 이름. 페니키아 또는 헤브라이에서 전래되었다는 하프 또는 프살테리움. 그리고 별도로 작은 플루트를 가리키는 일도 있었다.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308&docId=3666>)

여기서 피리는 정확한 악기명은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플라톤이 음악교육에서 금기시했던 아울로스⁴⁾를 비롯해서 구멍이 뚫려있는 모든 관악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피리는 도덕적인 성질을 표현하는 악기도 아닐뿐더러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피리의 연주가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걱정을 진정하려고 할 때에만 피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리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악기이므로 교육적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⁵⁾



[그림 7] 고대그리스의 항아리.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악기는 왼쪽부터 기타라, 하프, 류트.



[그림 8] 아울로스-춤추는 여인들과 피리 부는 남자. 포도주와 물을 섞는데 쓰던 커다란 대리석 통에 새겨져있는 것으로 여인들은 술의 신(神) 디오니소스를 위해 춤을 추고 있고 남자는 아울로스를 연주하고 있다.

4) 아울로스란 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그림4]에서처럼 가끔 두 개를 한꺼번에 불기도 했다.

5)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피리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악기이며, 인간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이므로, 피리에는 도덕적 형상이 존재하지 않다고 여겼다. 따라서 고대의 문헌에서는 보통 피리는 짐승의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시대에서는 한 때 피리의 교육을 허용하기도 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피리의 교육을 막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 이전 시대에는 피리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이용하여 더 많은 여가를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었으며 그렇게 얻게 된 여가가 그들의 고매한 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도덕적 판단보다는 단순한 열정만으로 모든 지식을 교육에 집어넣고 그 한가지로 피리까지도 교육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리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근거로 라케데모니아의 합창단의 예를 들고 있다. 이 합창단은 피리로 인도하는 합창단장이 있었는데 아테네에 이 악기가 자유인이 다룰 만큼 대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경험에 의해 피리의 연주가 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고, 이어서 리디아 금다, 현금, 칠각금, 삼부카 등 청중에게 쾌락만을 주고, 고차원적인 연주기술을 필요로 하는 악기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업적인 악기와 직업적인 음악의 교육방법을 배격한다. 즉 연주자는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중에게 쾌락을, 그것도 비속한 쾌락을 주기 위해 연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주자가 지향하는 목적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 그 연주자 역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6장에서는 연주와 감상의 효용성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악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정치학』 제8편의 마지막장인 제7장으로 들어가면 리듬과 선법을 교육에 활용할 때 그 활용범위와 기준, 그리고 음악의 카타르시스론이 전개된다.

제7장의 서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리듬과 선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미 논의되어 있는 논리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앞서간 철학자들의 설명에 의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 즉 행동적인 멜로디와 열성적인 혹은 선동적인 멜로디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선법이 있다는 분류법을 인정한다.

그러나 음악이란 한 가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 즉 교육을 위해, 정화(카타르시스)를 위해, 지적향락과 노력 뒤의 여가를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종류의

선법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교육에 있어서 윤리적인 선법을 택해야 한다고 언급하다.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의하는 선법은 도리아 선법이다. 도리아 선법이 가장 중간적이라는 것은 그의 중용에서 알 수 있듯 가장 도덕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국가론』에서 프리지아 선법 역시 도덕적이라고 역설한 것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리지아 선법이 피리음악에 흔히 쓰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선법이라 보고, 윤리적인 선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예로 박카스의 찬가(讚歌)를 예로 들고 있다. 박카스의 흥분이나 그와 같은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프리지아 선법이기 때문에, 박카스의 찬가를 도리안 선법으로는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리안 선법이 가장 장엄하고 남성답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도리안 선법의 음악을 배워야 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이익인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위해 윤리적인 도리아 선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법 역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교육에 있어서는 대개 윤리적인 선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감상할 때에는 행동적인 선법과 열정적인 선법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민과 공포, 또는 열광과 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 그런 성격을 지닌 선법을 들으면 그런 감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배설해서 과도한 상태를 없애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론(정화론)이다. 그래서 보통의 뜻인 ‘정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카타르시스란 어떤 감정을 없애거나 완벽히 제거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이 어떠한 감정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한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면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덕으로 가는 삶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화론과 맞물려 자유인을 위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저속한 사람들의 휴식을 위해서도 그들의 수준에 상응하는, 저속한 쾌락에 머무르는 음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철학자들이 저속한 쾌락을 위한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저속한

음악을 위한 연주자와 경기장의 존재 역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 향락을 위해 음악이 허용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모든 선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들이 저속한 쾌락이 아닌 순수한 쾌락으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리듬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설명이 없다. 다만, 리듬 역시 선법과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론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가능한 것과 적당한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나이에 상응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인은 고음을 내기 어려우므로 노인에게는 온화한 선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에게 적합하고 질서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리디아 선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중용성과 가능성,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V. 결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발전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의식주 생활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루 하루가 지날 수록 물질생활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습득하지 못하고,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간과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은 전인교육을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한국의 교육상황에서 부모들은 결국 학생들의 높은 성적을 위한 경제적 후원자일 뿐, 역할 모델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거의 사라진 듯하다.

결국 인간 생활의 목적을 물질적인 측면에 맞추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란은 학생들의 윤리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윤리적 갈등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황금만능의 생각을 갖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정신적인 면, 즉 최고선, 행복에 두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관조적 이성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관조적 이성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사고, 고찰, 비교 등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은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자유인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관조적 이성으로 사유를 한다는 것은 여가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위한 교과목으로 특히 음악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이 도덕적인 형상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어 사람의 성격과 덕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은 오락, 지적향락, 그리고 도덕성의 배양도 초래하면서, 지속적으로 더욱 순수한 쾌, 즉 최고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려서부터의 음악교육을 중요시했다. 그것은 어릴 때 습득하지 못한 덕은 어른이 되어서 습득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론에 바탕을 둔 음악 교육은 이러한 현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음악교육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악교육 사상 고찰을 통해 음악교과를 등한시 하는 현대의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고 충실한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김성수. (1994).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실체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춘미. (1995). 원전 연구를 통해 본 음악학의 시원. 서울: 음악춘추사.
- 성기산. (1983). 서양 고대의 교육사상. 서울: 대은출판사.
- 손효선. (2008). 고대 그리스 음악 교육관에 대한 연구; 피타고라스, 플라톤, 이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상남도.
- 안상진, 윤명노, 한진욱. (1977). 철학개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 정대련. (1983).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원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홍효숙. (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이해와 교육철학.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전라북도.
- W. Durant. (1997). The story of philosphy. New York: Garden city publishing co.

ABSTRACT

A Study on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Focused on Chapter 8th in the Politics

Ko, Jin Young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Young Bae

21 century is enjoying material wealth by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and globalization, and is asking forming of new values, such as recovery of humanity, creativity and so on. But overflowing of egoism and mammonism caused the phenomenon of dehumanization because of the social development, also it is a fact that it is becoming social confusion. And confusion of values have overflowed in the whole society by social mood stressing only economic side.

Because of the confusion of values, teenagers who will lead future society can't also form desirable values in there, and there have caused many problems of teenagers by knowledge-heavy educational reality.

Music education in ancient Greece provides a clue that can solve the problem, they began to recogniz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as part of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Especially there was a thinker who considered that virtue was formed by music, he is Aristoteles who put a premium on

music education.

Thus this study would consider about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as means for solution of teenager's problem that is constituting a social problem. This study examines Aristoteles' life and books, teleologic Weltanschauung and his view of understanding about human, and relation between his political ideal and education, and then looks around his educational ideas of music that appears in chapter 8th of Aristoteles' the 『Politics』 .

Modern knowledge-heavy educational climate can be restored by relighting on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so solution that can heal modern social ills is founded by nourishment of teenagers who have desirable values.

Key word: : Aristoteles, Educational ideas of music, Politics

